

2013년 봄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삼일 하나님께서 세 부분으로 된 사람에게 생명이심

메시지 15

삼일 하나님의 표현이 확대되고 확장됨을 위해
삼일 하나님께서 세 부분으로 된 사람에게 생명이심

성경: 창 1:26-27, 요 5:26, 롬 9:16, 2:4, 눅 6:36, 애 3:22-23

- I.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사람을 신격이 아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이 만드는 것이며 그분 자신을 사람과 하나되게 하시고 사람을 그분과 하나되게 하시어 그분의 표현이 확대되고 확장되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모든 신성한 속성들이 인간 미덕들 안에서 표현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딤후 1:4, 엡 1:10, 3:9.
- II. 삼일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경륜의 수행을 위하여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창 1:26-27.
 - A. 하나님의 내적 존재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들의 내적인 본질의 표현이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랑(요일 4:8)과, 빛(요일 1:5)과, 거룩(계 4:8)과, 의(렘 23:6)이다.
 - B. 하나님의 모습(빌 2:6)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의 인격의 본질과 본성의 표현이다.
 - C.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담고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 D. 하나님과 사람은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과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하다—요 15:5, 롬 6:5, 11:17-24, 고전 6:17.
 - E.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이 그분을 생명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에 있어서 그분을 표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창 1:26-27, 2:9.
 1.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신 이유는 그분의 의도가 사람 안으로 들어 오시고 사람과 하나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엡 3:17 상.
 2.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 사람이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영접함으로써 그분의 표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딤후 1:4, 요 3:16, 벰후 1:4, 고후 3:18.
 3.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빛과 의와 거룩을 담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요일 1:5, 4:8, 엡 4:24, 5:2, 8-9.
 4. 우리는 하나님의 종류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 미덕들은 신성한 속성들을 담을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후 10:1, 11:10.
 - F.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재생산이 되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재생산은 하나님처럼 보이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요 12:24, 롬 8:29, 히 2:10, 요일 3:1.

III. 하나님께서 그분의 표현에 있어서 확대되시고 확장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한 속성들에 있어서 단체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 A. 신성한 생명은 하나님의 첫번째이자 기본적인 속성으로 여겨질 수 있다—엡 4:18, 요 5:26, 요일 5:11-12, 롬 8:2.
1. 하나님의 생명의 신성하고 영원한 본성에 따르면 하나님의 생명은 유일한 생명이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생명으로 여겨질 수 있다—요 1:4, 10:10 하, 11:25, 14:6.
 2. 생명은 하나님의 내용이며 하나님의 흘러 나오심이다. 하나님의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이며 하나님의 흘러 나오심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엡 4:18, 계 22:1.
 3. 생명은 그리스도이며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과 우리로부터 살아 나오시는 것이다—요 14:6, 골 3:4, 갈 2:20, 빌 1:21 상.
 4. 생명은 성령이다—요 14:16-17, 고전 15:45 하, 롬 8:2, 고후 3:6.
 5. 생명은 우리 안으로 분배되시고 우리 안에서 사시는 삼일 하나님이다—롬 8:10, 6, 11.
- B. “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달음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롬 9:16.
1.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서 가장 멀리 미치는 것으로서 사랑이나 은혜보다 훨씬 더 멀리 미친다. 하나님의 이러한 가장 멀리 미치는 속성은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게 한다—엡 2:4.
 2.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실패에 실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희망은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히 4:16.
 3.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분명한 방식으로 만지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긍휼의 그릇들이다—롬 11:32, 9:23.
- C. “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려는 것을...” —롬 2:4.
1. 인자하심은 긍휼과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호의적인 선함이다. 그러한 인자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엡 2:7, 삼하 9:1-3, 7, 13.
 2.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른이들과 구별되게 하는 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다—딤후 3:4-5.
- D. “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여러분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눅 6:36.
1. 자비는 애정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내적인 느낌을 가리킨다. 그러한 느낌은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이며, 비참함을 살펴보는 사람 안에 거한다—롬 9:15, 고후 1:3.
 2. *자비*는 가련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내적인 애정을 보여주는 단어들 중에서 가장 깊은 것이다—눅 7:11-15.
 3. 예레미야는 매일 아침 주님을 자비로운 분으로 접촉했다. 예레미야는 주님을 접촉함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신실함에 관한 말씀을 받았다—애 3:22-23.
- E. “ 주의 신실이 큼니다.” —애 3:23 하, 비교 고전 1:9, 10:13, 딤후 2:13.